

〈제 755호〉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광주은행

◆대불산단 근로자 공동세탁소에 운송차량 기증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최근 대불산단 복합 문화센터 개관 및 근로자 공동세탁소 개소를 기념하여 세탁물 운송 차량 1대를 기증했다고 밝혔다.

문화,예술,평생교육 시설을 갖추고 이번에 새롭게 문을 연 대불산단 복합문화센터는 산업단지 활성화 및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켜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유해물질 취급 사업장 작업복을 세탁할 수 있는 근로자 공동세탁소를

마련함으로써 대불산단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복합문화센터 및 근로자 작업복세탁소 신설을 통해 대불산단 근로자와 주민의 문화 욕구 충족은 물론 삶의 질이 개선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지역밀착형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기반 자금세탁방지(AML)시스템 전면 재구축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최근 금융거래의 디지털화, 자금세탁 범죄의 고도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AML)시스템’을 전면 재구축 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기반 금융거래 분석을 통해 고객별 자금세탁 위험도를 정밀하게 평가하고, 거래 모니터링 및 의심거래 분석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축했으며, 로봇업무자동화(RPA) 적용 업무를 확대해 질적 생산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광주은행 고병일 은행장은 “자금세탁방지시스템 전면 재구축을 통해 자금세탁 위험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법규 준수 및 글로벌 금융제재(Sanctions) 리스크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적극적인 자금세탁방지 수행을 통해 건전한 금융시장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여, 고객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은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광주신세계

◆한국ESG기준원 종합평가 'A등급' 획득



광주신세계(대표 이동훈)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기관 한국 ESG기준원의 2023년 종합평가에서 A(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광주신세계는 환경 부문에서 A(우수) 등급, 사회 부문에서 A+(매우 우수) 등급, 지배구조도 역시 A(우수) 등급을 각각 획득해 트리플 'A'를 달성하며 종합평가 A라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동훈 대표는 “지속가능한 ESG경영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보다 수준이 향상돼 종합평가서 A등급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ESG 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서 ESG경영 내재화를 추진하는 등 자체 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친환경 캠페인에 신세계를 열다



광주신세계(대표 이동훈)가 ESG 활동의 일환으로 잔반 줄이기 캠페인을 펼친다.

음식폐기물 감소를 통한 탄소 배출 저감을 목표로 ‘소주잔’ 캠페인을 시작했다. ‘소주잔’이란 이름은 ‘소’ 중한 지구를 망치는 ‘주’범은 ‘잔’반의 앞글자를 딴 것으로 지난 28일부터 광주신세계 본관 지하 1층 직원식당에서 진행 중이다.

광주신세계 이동훈 대표는 “‘소주잔’이나 ‘알쓸커모’ 캠페인은 친환경 활동을 일상 속에서 임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이라며 “광주신세계는 현지 법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지역 맞춤 친환경 활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시본부

◆광주 안전문화실천추진단, 대기업-협력업체 릴레이 안전캠페인 전개



광주지역 안전문화실천추진단(단장 양정열 광주 지방고용노동청장)은 27일 광주 평동산업단지에 소재한 코비코(주)에서 코비코(주) 공장, 사내 협력사 대표, 관리감독자 등 근로자, 광주지방 고용노동청 및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시본부 관계자 약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문화 정착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합동 릴레이 안전캠페인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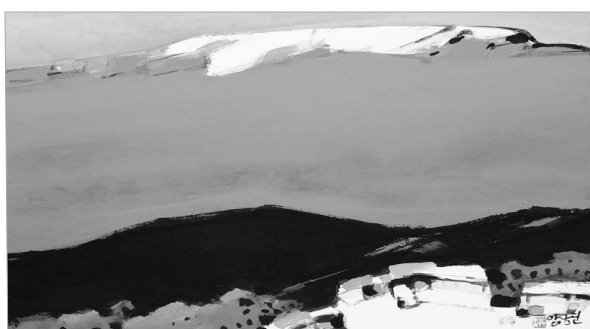
전개하였다.

이번 릴레이 캠페인은 모기업과 협력업체 간 상호 안전문화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실천의지를 다지는 한편, 지역사회 전반에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시본부, 기아오토랜드 광주사업장 및 협력사가 함께 매월 실시하는 안전문화 추진활동의 일환이다.

김무영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시본부장은 “이번 릴레이 캠페인이 제조업 사업장에 자율안전 활동이 안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에도 관내 대기업,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우리지역 제조업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남대학교 병원

◆한국화가 홍정호 초대전 개최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안영근)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병원 1동1층 CNUH 갤러리에서 한국화가 홍정호 작가 초대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백두대간의 사계’를 주제로 한 작품 16점을 선보인다.

홍정호 작가에게 백두대간은 먹과 채색 그리고 전통의 화두를 풀어내는데 있어 중요한 모티브다.

전통적 계승이 아닌 실험적인 새로운 방법의 화면구성과 내면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올림의 상징이 곧 백두대간이기 때문이다.

전남대병원은 환자 및 보호자의 치료에 따른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개월마다 유명작가들의 작품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전남대학교병원(원장 안영근)은 지난 1일 오후 2시30분부터 병원 병동 및 건물 등지에서 2023년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병원 내 화재사고가 발생해 환자 및 보호자가 긴급히 대피하는 상황을 가정해 실시했다 특히, 긴급대피 및 구조 훈련을 위해 소방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재난의료지원팀이 참여해 환자 이송 등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비, 실제상황과 동일하게 진행됐다.

안영근 병원장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 사고에 대비하여 평소에 반복하여 훈련 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환자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과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전KPS

◆ 국제품질분임조 경진대회서 '금상' 수상



발전·송전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사장 김홍연)가 2023년 국제품질분임조 경진대회(ICQCC 2023 China)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국제품질분임조 경진대회는 매년 각국을 순회하며 열리는 국제대회로, 전 세계에서 분야별로 뛰어난 기술력을 갖춘 분임조들이 참가해 우수 기술을 알리고 정보교류와 사례연구의 장이 되고 있다.

김홍연 한전KPS 사장은 “이번 수상은 전사적 품질 혁신활동 노력이 고객 가치를 창출한 결과로 세계적으로 품질 명가의 위상을 인정 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넘버원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 안정적 운영과 해외시장 개척에 더욱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폐전기제품 친환경 재활용 실천



발전·송전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 (사장 김홍연)는 24일 E-순환거버넌스와 ‘폐전기·전자 제품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E-순환거버넌스는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폐전기·전자 제품의 친환경 재활용 촉진 및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공익법인으로 환경부로부터 유일하게 인가를 받은 기관이다.

김홍연 한전KPS 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의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경영 실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해양에너지

◆CO중독 사고 예방차 경보기 무상지원



해양에너지(대표이사 정희)는 지난 3일 동구 학동 평화맨션아파트에서 CO(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360세대에 CO경보기를 무상지원 했다고 7일 밝혔다.

광주광역시시는 노후보일러에서 배출되는 CO의 양을 감소시켜 CO중독사고 예방 및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친환경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시 정책에 동참코자 해양에너지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동구청, 한국열관리시공협회와 함께 민관합동 안전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20년부터 CO경보기 무상지원사업을 시작해 2021년 496대, 2022년 303대, 2023년 360대를 지원하여 총 1,461대를 무상지원한 바 있다.

해양에너지 정희 대표는 “동절기 CO중독사고를 예방하고 고객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무사고 가스 안전관리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안심도시, 안전과 건강의 안심도시 광주광역시’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알 림 >

본란은 본회 회원사 소식을 게재하고 있사오니 대표 동정, 행사, 제품 소개 등 기타 홍보하실 내용을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 담당 : 최 수 용 대리

○ e-mail : gjef3425@naver.com

〈제1626회 금요조찬포럼〉

영구적 위기의 시대 웃음 건강법

(김영식 교수)

1626회 금요조찬포럼은 김영식 남부대학교 교수를 초청하여 「영구적 위기의 시대 웃음 건강법」을 주제로 대해 이야기하였다.

세상이 아주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도산하는 기업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그리고 금융의변화 고금리, 디지털 화폐와 기후변화로 인한 새로운 질병, 바이러스의 발생과 같은 영구적 위기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부터 챙겨야 합니다.

나의 건강, 자산, 지금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내 주변 사람과 인간관계를 잘해야 합니다. 결국 나의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만나는 사람 중에 적이 있습니다. 가장 친한사람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행복의 척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였습니다. 관계가 좋을 때 인간은 가장 큰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웃어주면 나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저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웃음으로 시험을 봐서 학점을 줍니다. 제가 가르치는 교양과목 중 행복학개론이란 수업입니다. 행복학이라고 하면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의 행복론을 이야기합니다. 네이버에만 검색해도 평생 읽지도 못할 행복론이 나올 겁니다. 그것을 공부한사람은 정말 행복할까요? 2천년전보다 우리는 자동차, 비행기, 스마트폰과 같은 물질적 풍요를 누리지만 자살율은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웃음으로 학점을 주고 있습니다. 레포트는 학교에서 저를 만나면 15초동안 웃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저를 못 만날 경우 지정된 스마일존에서 웃는 영상을 15초 이상 제작해서 보내주거나, 가족들과 함께 웃는 영상을 촬영해서 보내줘야 합니다. 한 학생이 처음에 아버지와 웃는 영상을 찍을 땐 아버지가 어색했습니다. 두 번째 찍을 땐 좀 자연스러워 졌습니다. 가장 중요한건 두 번째 영상 마지막에 아버지가 좋다고 말하는 내용이 찍혔습니다. 세 번째 영상이 온 후 실직해 있던 아버지가 양복을 다려 입고 일자리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내가 자식을 앞에서 언제 이렇게 웃어봤을까 하는 인생의 회한이 느껴졌던 겁니다.

다른 학생은 어머니와 영상을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어머니가 딸과 박수를 치고 웃다가 갑자기 통곡을 하면서 이야기 합니다. 딸아 미안하다. 엄마가 아파서 미안하다 우리 딸 덕분에 나 오랜만에 웃었어. 엄마 정말 열심히 해서 이겨낼게 말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영상에서 계속 딸과 박수치고 웃던 어머니는 암을 극복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야 말고 진정한 승자라고 생각합니다. 광주경충 회원분들도 웃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1. 경제 동향

◆ 경총, 「우리 상속세제에 대한 3040 CEO(창업자) 인식조사」 결과 발표 (10.30)

- 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30~40대 벤처·스타트업 CEO(창업자) 140명*을 대상으로 「우리 상속세제에 대한 3040 CEO(창업자)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85.0%)가 ‘상속세 폐지’ 또는 ‘최고세율 OECD 평균 수준(25%)으로 인하’가 바람직하다고 답변. 또한 이들은 높은 상속세가 기업가정신을 저해(93.6%)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96.4%)시킨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업력 3년 이상, 연간 매출액('22년) 20억원 이상의 벤처·스타트업 창업자(CEO) 중 30대, 40대 대상(경총과㈜글로벌리서치가 공동으로 조사 진행)

①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한 인식) 응답자의 85.0%는 우리 상속세 최고세율(50%)*에 대해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하거나 ‘OECD 평균 수준(25%)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답변. 반면 ‘現 수준(50%)이 적당하다’는 응답은 9.3%, ‘부의 대물림 방지와 불평등 완화 차원에서 現 수준보다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4.3%에 그침.

* 우리나라 상속세는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최대 50%(최대주주 할증 시 60%) 세율 적용. 우리 상속세 최고세율(50%)은 OECD 국가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고, OECD 평균(약 25%, 2022년 기준)의 2배 수준임.

② (상속세가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 현재의 높은 상속세율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에서, ‘기업인의 기업하려는 의지와 도전정신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응답이 93.6%(‘매우크게 작용’ 47.9% + ‘일정 부분 작용’ 45.7%)로 나타남.

③ (상속세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에서도,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 기업의 오너들이 주가 부양에 소극적이거나, 오히려 낮은 주가를 선호하는 경우도 발생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응답이 96.4%**에 달했음.

* 우리나라 기업의 주가가 비슷한 수준의 외국기업 주가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현상

** ‘매우 심화시킴’ 47.1% + ‘일정 부분 심화시킴’ 49.3%

Ⅲ. 노동경제동향

④ (기업 승계 영향) 응답자의 68.6%는 현재 경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경영 부담 등의 이유로 자녀에게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답변. '자녀에게 승계할 계획이다'라는 응답은 20.7%에 불과.

⑤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 이슈) 정부가 검토 중인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응답 비중이 82.1%로 가장 높았음. '현행(유산세 방식)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15.7%에 그침. 나타남.

* 근로시간 정책의 주 고려대상이 임금근로자임을 고려해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중을 고려하여 분석

- 80% 미만인 7개 업종은 우리나라 39.31시간으로 OECD 평균 36.67시간보다 2.64시간 더 긴 것으로 분석됨.

⑥ (상속세 부담 완화에 따른 기대효과) 상속세율 인하, 공제 확대 등으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경우 기업의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등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묻는 설문에서 '도움된다'는 응답이 69.3%로 높게 나타남. '도움 안됨' 응답은 27.8%, '영향 없음' 응답은 2.9%로 각각 집계

◆ 통계청, 「2023년 9월 산업활동동향」 발표 (10.31)

○ (생산) 2023년 9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1.8%)과 서비스업(0.4%) 등에서 생산이 모두 늘어 전월대비 1.1% 증가(전년동월대비 2.8% 증가)

※ 전산업생산 증감율 추이(% , 전월대비) : 0.7('23.5)→ 0.0(6)→ △0.8(7)→ 2.0(8)→ 1.1(9)

- 광공업생산은 자동차(△7.5%) 등에서 줄었으나, 반도체(12.9%)* 기계장비(5.1%)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1.8% 증가(전년동월대비 3.0% 증가)

* 반도체 생산 증감율 추이(% , 전월대비) : 2.5('23.5)→ 3.6(6)→ △2.5(7)→ 13.5(8)→ 12.9(9)

- 서비스업생산은 예술·스포츠·여가(△4.2%) 등에서 줄었으나, 도소매(1.7%), 운수·창고(2.2%)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0.4% 증가(전년동월대비 2.2% 증가)

Ⅲ. 노동경제동향

- (제조업평균가동률) 2023년 9월 제조업평균가동률은 73.2%로 전월대비 보합(전년동월 대비 보합)

※ 제조업평균가동률 추이(%) : 72.8('23.5)→ 71.7(6)→ 69.9(7)→ 73.2(8)→ 73.2(9)

- (제조업 재고율*) 2023년 9월 제조업 재고율은 113.9%로 전월대비 10.4%p 하락(전년동월 대비 6.0%p 증가)

* 제조업 재고율은 제조업 재고지수를 제조업 출하지수로 나눈 값으로, 출하된 물건보다 쌓인 물건이 더 많을 때 100%를 초과.

※ 제조업 재고율 추이(%) : 123.2('23.5)→ 112.3(6)→ 124.0(7)→ 124.3(8)→ 113.9(9)

- (소매판매) 2023년 9월중 소매판매는 내구재(△2.3%), 준내구재(△2.8%) 판매가 줄었으나, 비내구재(2.3%) 판매가 늘어 전월대비 0.2% 증가(전년동월대비 1.9% 감소)

※ 소매판매액지수 증감률 추이(전월대비, %) : 0.6('23.5)→ 0.9(6)→ △3.2(7)→ △0.3(8)→ 0.2(9)

- (설비투자) 2023년 9월중 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7.3%) 및 항공기 등 운송장비(12.6%)에서 투자가 모두 늘어 전월대비 8.7% 증가(전년동월대비 5.7% 감소)

※ 설비투자는 전년동월대비 기준으로 2023년 5월(△4.9%) 이후 5개월 연속 하락

: △4.9('23.5)→ △2.5(6)→ △11.2(7)→ △14.6(8)→ △5.7(9)

- (경기지수)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3(전월대비 0.1p 하락),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4(전월대비 0.1p 상승) 기록

◆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10월 수출입 동향」 발표 (11.1)

- (총괄) 2023년 10월 수출은 550.9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5.1% 증가했으며, 수입은 534.6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9.7% 감소

※ 수출은 지난 2022년 10월(△5.8%) 감소 전환 후 12개월 연속 감소했으나, 2023년 10월(5.1%) 증가 전환.

▶ 수출증감률 추이(% , 전년동월비): △6.0('23.6)→ △16.1(7)→ △8.1(8)→ △4.4(9)→ 5.1(10)

Ⅲ. 노동경제동향

- 10월 무역수지는 수출(5.1%)은 증가한 반면, 수입(Δ 9.7%)은 감소하면서 16.4억달러흑자를 기록(5개월 연속 흑자)

※ 무역수지 추이(억 달러) : 12.1('23.6)→ 18.2(7)→ 10.1(8)→ 37.0(9)→ 16.4(10)

- (품목별) 15대 주력품목(전체수출의 약 75% 차지) 중 선박, 자동차 등 6개 품목 수출은 증가, 컴퓨터, 이차전지, 섬유 등 9개 품목은 감소

※ 2023년 10월 품목별 수출증감률(%)

: (선박) 101.4, (자동차) 19.8, (석유제품) 18.0, (디스플레이) 15.5, (일반기계) 10.4, (가전) 5.8, (철강) Δ 0.7, (바이오헬스) Δ 1.6, (반도체*) Δ 3.1, (석유화학) Δ 3.2, (차부품) Δ 3.7, (무선통신) Δ 4.5, (섬유) Δ 9.0, (이차전지) Δ 14.5, (컴퓨터) Δ 30.4

* 반도체 수출은 2022년 8월(Δ 7.8%) 이후 15개월 연속 감소했으나, 2023년 10월 반도체 수출 감소 폭(Δ 3.1%)은 2022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

- (국가별) 對미국(17.3%), 對아세안(14.3%), 對일본(10.4%), 對인도(9.2%) 등에 대한 수출은 증가, 對CIS(16.0%), 對EU(10.7%), 對중국(9.5%) 등주요국에 대한 수출은 감소

◆ 통계청, 「2023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 발표 (11.2)

- 2023년 10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8% 상승해 2023년 3월(4.2%) 이후 8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

※ 소비자물가는 '23년 2월(4.8%)부터 둔화되기 시작하여 7월에는 2.3%까지 낮아졌으나, 8월에 다시 3%대에 진입

▶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 전년동월비) : 2.7('23.6)→ 2.3(7)→ 3.4(8)→ 3.7(9)→ 3.8(10)

- (지출목적별) 12개 부문 가운데 의류 및 신발(8.1%),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6.7%),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5.5%) 등 12개 부문이 모두 전년동월대비 상승

- (품목성질별) 상품은 전기·가스·수도(9.6%) 상승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4.7% 상승했고, 서비스는 개인서비스(4.1%)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3.0% 상승

Ⅲ. 노동경제동향

- 2023년 10월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6% 상승했고, 소비자들의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생활물가는 전년동월대비 4.6% 상승

◆ 고용노동부, 「2023년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10.31)

〈 고용 부문('23.9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기준) 〉

- (종사자 수) 사업체 종사자는 1,990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1만명(1.6%) 늘어나며 '21년 3월부터 31개월 연속 증가
- (입·이직) 입직자는 100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명(4.1%) 증가했고, 이직자는 97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만 3천명(8.1%) 증가

〈 근로실태 부문('23.8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기준) 〉

- (명목 임금)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명목 임금총액은 374만 2천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원(1.1%) 증가
- (총 근로시간)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61.1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8시간(△1.1%) 감소
 -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월력상 근로일수는 전년과 동일(22일)함에도 전체 근로시간이 감소한 것은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한 영향

[1~8월 누계 근로실태]

- (명목 임금) 1~8월 누계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명목 임금총액은 391만 6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만 9천원(2.1%) 증가
 - ※ 사업장 규모별 명목 임금상승률(1~8월 누계, %) : [300인 미만] 1.9, [300인 이상] 1.5
- (총 근로시간) 1~8월 누계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57.7시간으로 전년동기대비 0.3시간(△0.2%) 감소
 -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1~8월 누계 월력상 근로일수는 전년대비 2일 증가, 근로시간 감소는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에서 감소한 영향

Ⅲ. 노동경제동향

◆ 통계청, 「'2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 발표 (11.1)

- 비임금근로자는 672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8천명 증가,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3.4%로 0.1%p 하락
 - (고용원 유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5만 9천명 증가했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3만 4천명 증가, 무급가족종사자는 5만 5천명 감소
 - (산업별) 건설업(3만 6천명), 제조업(3만 1천명) 등에서 증가, 도·소매업(△5만 1천명), 농림어업(△7천명), 예술·스포츠(△6천명) 등에서 감소
-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일자리) 평균 운영(소속)기간은 15년으로 전년동월대비 2개월 증가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동월과 동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3개월 증가
- 비임금근로자의 평소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4.9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1시간 감소함.
- 비임금근로자 중 '현재 사업체를 계속 유지할 계획' 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86.8%로 전년동월대비 2.5%p 하락함. '현재 일을 그만 둘 계획' 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5.3%로 전년동월대비 1.1%p상승

2. 노사 동향

◆ 11월 국회에서는 노조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고조될 전망

- 11월 국회 본회의가 11. 9 개최 예정인 가운데 야당은 노조법 제2조·3조 개정안의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입장 표명
- 또한, 박정 환노위 위원장은 10. 31 여야 상임위원장 간담회에서 최근 노조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언급하며 대통령에게 노조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국회 입법 과정을 존중해 달라고 요구
 - ※ 헌법재판소는 10. 26 여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청구한 노조법 개정안의 직회부에대한 권한쟁의심판 기각
- 여당은 야당의 노조법 개정안 통과 추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
 - 여당 윤재옥 대표는 10. 30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기업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산업생태계가 혼란에 빠지고 노사갈등이 격렬해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
- 한편, 노동계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노조법 제2조·3조 개정안의 11월 국회 통과를 요구하며 대국회 투쟁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
 - 민주노총은 11. 6부터 주요 산별 조직을 중심으로 ▲국회 앞 선전전, ▲환노위 의원 등에게 집단 문자 발송, ▲국회의장 지역구 앞 문화제 개최 등 국회 압박 수위를 높이기로 결정
 - 또한, 민주노총은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이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시 총파업 집회(11. 20) 등 대정부 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

◆ 양 노총이 회계 공시에 참여한 가운데 정부는 노사법치주의 기반의 노동개혁지속 추진 강조

Ⅲ. 노동경제동향

- 대통령은 10. 31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양 노총의 회계 공시 참여를 언급하고 노사 모두의 노동개혁 동참 촉구
 - 대통령은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노동개혁을 추진해왔으며, 양 노총의 회계공시를 계기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노동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
- 고용부는 11월 중 근로시간 개편안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노동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 피력
 -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10. 30「민생현장 기관장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개편 설문조사 결과 및 상생임금위원회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권고문을 토대로 노동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겠다고 발언
 - 또한,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해 노동개혁 추진을 미루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해 고용부는 노동개혁이 지연되지 않도록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해명
- 한편, 고용부는 11. 2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 원조 관련 기획 근로감독 중간결과 발표
 - ※고용부 기획 근로감독(중간 결과) : 2023. 9. 18 ~10. 13(대상: 62개소)
 - 고용부는 근로감독 결과 39개 사업장(공공 26개, 민간 13개)에서 위법 사항을 확인해 시정을 지시하고, 11. 30까지 추가적으로 약 140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진행한다는 계획